



남북한(WT-ITF) 태권도 합동시범의 발전방안 탐색

최동성^{1*} · 전정우² · 곽애영³

1. 경희대학교, 박사 2. 경희대학교, 교수 3.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요약

목적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의 추진배경과 결실에 나타난 의미를 규명하여 향후 남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추구해야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논제에 따라 연구계획을 수립한 후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보다 더 실증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남북한 태권도시범에 참여한 WT직원, 감독, 코치 및 대표 단원 등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WT-ITF 교류협력의정서(2014)는 다수의 국제무대에서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이라는 역사적인 현장을 구현하게 했으며, 남북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한 WT-ITF 평양합의서(2018)는 올림픽의 정신이 깃든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합동시범을 성사시킴으로써 하나 된 태권도 올림픽 평화정신을 대외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 둘째, 남북한 합동시범 교류는 두 조직의 태권도 기술 이질화를 개선·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두 조직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올림픽 정신인 전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남북한 합동시범교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월드투어시범 공동추진위원회 및 단일 시범단의 결성, 전용훈련장의 건립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결론 향후 남북한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탈피하고 태권도 양대 단체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남북 태권도가 진정으로 통합 되며,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도 스포츠종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주제어 WT-ITF 합동시범, 세계태권도연맹, 국제태권도연맹, 남북한 태권도 교류, 태권도 합동시범의 발전방안

I. 서론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개최된 이후 남북이 계획했던 후속 고위급 회담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바로 체육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남북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출전하여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Korea Sports & Olympic Committee, 2018).

이렇게 남북체육교류가 남북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가운데 점차 우리나라 무예를 대

표하는 태권도 종목에서도 ‘남북한 태권도 합동시범’, ‘태권도를 통한 남북 교류, 화합, 평화’ 등의 용어가 출현하며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이는 2015년부터 성사되기 시작한 남북 태권도 합동시범이 태권도 차원의 교류를 넘어 남북의 화합을 도모하는 주요 매개체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 최초의 태권도시범 교류는 2001년 합의된 남북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2002년 9월 평양의 태권도전당(대한태권도협회 방북)과 동년 10월 서울올림픽공원(조선태권도위원회 방남)에서 상호교류교류 행사로 이루어졌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5).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남북 태권도시범 교류는 2014년 8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로 표기)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중재 하에 협의된 남북한(WT-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으로 토대로 작성된 것임.

* cds2604@hanmail.net

ITF)¹⁾ 합의 의정서를 토대로 재개 되었다. 남북한은 ‘다국적 시범단 구성’이라는 의정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5년 5월 러시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남북 태권도 사상 최초로 합동공연을 펼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Kim, 2017, 6월 25일). 당시 시범은 WT-ITF 두 국제기구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다.

2017년 6월 대한민국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폐막식 행사에서도 남북한이 태권도시범으로 하나 되는 현상이 구현되었다. 이를 계기로 WT의 조정원 총재와 ITF의 리용선 총재는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의 합동시범공연을 구두로 합의 하였고(Choi, 2020), 마침내 2018년 2월 9일 ITF 태권도 시범단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식 식전행사에서 WT와 합동시범을 펼치게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남북 합동시범교류의 지속적인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2018년 11월에는 태권도 통합을 위한 협약이 평양에서 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4월에는 스위스로잔과 제네바 UN 본부에서 개최된 IOC와 WT의 행사에서 WT-ITF 합동 태권도시범이 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Kwak, 2020).

이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동일한 근원에서 시작된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계 평화의 이상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WT-ITF 태권도시범단의 역할은 양대 태권도 단체의 통합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남북의 평화증진 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적 연구는 필수불가결 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남북한 태권도시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남북한 태권도교류(Hong, 2017; Kwak, 2020; Kim, 2001; Kim, 2008; Lee, 2003; Lee, 2015; Meong, 2001)와 남북한 태권도시범의 비교분석(Jang, 2003; Jang, 2019; Jung-Park, 2008; Park, 2002)으로 집중연구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연구들은 남북한 태권도교류의 성과와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주로 연구된 내용이 태권도 경기와 2002년 남북 태권도시범 교환교류행사 분석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2015년부터 이루어진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이 성사된 일련의 과정과 결실에 나타난 합동 시범단의 의의와 발전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5러시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폐막식을 시작으로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9유럽순방에서 보여준 남북한 합동시범의 추진내용과 결실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태권도 시범단의 의의와 발전방안을 분석하는 것은 실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남북한 태권도 합동시범의 추진배경과 합동시범에 나타난 의미를 규명하여 향후 남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추구해야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단일 교류시범 행사만을 비교분석했던 선행연구물들과 다르게 남북한 태권도 합동시범 행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논제에 따라 연구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보다 더 실증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와 면담 결과를 기록화한 자료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후 연구 분석에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로 수집·분석하였고 보완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2. 자료수집

남북한 태권도시범과 관련된 학위 및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태권도관련 협회 및 연맹의 소장 자료 및 기록물, 신문 및 뉴스보도자료, 남북한 시범 녹화영상 및 사

1) WT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은 1973년 5월 창설되어 IOC정식종목으로 가맹된 국제기구이며, 현재 전 세계 210개국의 가맹국을 관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한 태권도를 WT로 일관되게 명시했다.

ITF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은 1966년 3월 대한민국에 창설된 태권도 국제단체였으며, 현재는 북한을 주축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가맹국을 관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태권도를 ITF로 일관되게 명시했다.

진자료 등의 1, 2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남북한 합동시범 추진 당시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WT의 직원, 시범단연출 감독, 시범에 참여했던 코치 및 단원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자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북한 태권도시범의 성사를 추진 또는 직접 참여했던 대표 인물로서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적 해석과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면담에 참여한 면담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s

Classification	Gender	Age	Career
Interview1 (KKS)	남	45	Chief of the Sports Department
Interview2 (SMS)	여	59	WT Direct Supervisor
Interview3 (LJS)	남	31	WT Head Coach
Interview4 (LYS)	남	28	WT Captain
Interview5 (KAR)	여	26	WT Member

심층면담에 관한 질문지는 ‘15러시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19유럽순방시범의 추진과정, 내용, 결과, 시범단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발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면담자의 특성에 맞춰 재분류하였고, WT 임원에게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담을, WT 시범단 연출 감독, 코치, 주장, 단원에게는 시범참여 당시의 상황과 시범단의 역할, 미래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론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는 사회사적 접근방법(Socio-historical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사회사적 접근의 장점은 특정한 역사,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2015년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남북 태권도시범을 통해 본 태권도시범단의 역할과 그 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도출하고 설명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면담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화 통화 시에는 사전에 면담자의 동의를 얻고 음성녹음을 실시하였다.

3. 신뢰도 및 자료 분석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적으로 면담 참여자들에게 도출된 연구내용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내용 분석과 연구자의 견해가 담긴 자료 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1차적 검토는 수집된 연구 자료의 분석·해석 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2차적 방법으로 지도교수 외에도 체육학과 교수 1인,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을 추진했던 WT 실무직원과의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교환 및 교차 확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남북한 합동시범의 추진배경과 결실

1) WT-ITF 상호협정의정서를 통한 남북한 합동시범

2000년 6·15 남북회담을 토대로 남북 분단 사상 최초로 성사된 남북한 태권도시범교향교류(2002) 행사는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남북평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러나 재차 북한의 핵문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면서 긴장된 남북관계가 지속되었고, 결국 남북한 태권도교류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중국에서 열린 유스 올림픽(Youth Olympic)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중재로 남북 태권도 단체 간의 만남이 재개되었다(Jang, 2018.09.19). 이는 2002년에 성사되었던 민간태권도단체 간의 교류가 아닌 지난 50년 동안 남과 북을 중심으로 뿌리 내린 국제 남북한 태권도기구 간의 만남이었다.

당시 WT 조정원 총재와 ITF 장웅 총재는 IOC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상호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협정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두 단체의 협력을 공조하는 진취적인 역사적 현장을 구현했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5). WT 조정원 총재는 의정서 체결 과정과 이행 노력을 다음과 같이 술회 했다.

WT-ITF의 통합은 불가능 하지만 양 기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양 단체 선수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문화개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과 2014년 8월 북한측에 러시아선수권대회에 북측시범단을 초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때마침 ITF 세계선수권대회도 올해로 예정되어 있어 좋은 교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Yang, 2015.02.18).

이와 같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태권도 협력을 위한 초청 문건이 발송되고 WT 장웅 총재를 통해 대회참가 의사가 회신됨으로써 마침내 2015년 5월 WT러시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는 남북 사상 최초의 합동 태권도시범이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5).

남북한이 단일 무대에서 이룬 첫 시범은 ITF의 단독 시범(20분), WT의 단독시범(20분), WT-ITF의 합동시범(2분)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17명으로 구성된 ITF 시범단은 틀, 남너 및 단체 맞서기, 위력 및 개인특기격파 등을 선보였고, 곧 바로 이어진 WT는 남북합동시범의 의미를 스토리 형식으로 담아낸 깃발 퍼포먼스, 자유 및 창작품새, 호신술, 위력 및 고공장애물격파, 태권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이후 러시아 단원 1,000여명과 WT-ITF 단원 전체가 한 무대에서 펼치는 태권도 기본동작 시범은 남북의 태권도가 하나라는 상징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2015 Video Analysis, 2018.11.01).

2017년 6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는 WT-ITF 협정의정서를 기반으로 남북한 합동시범이 또 다시 성사되었다. 이는 1972년 ITF가 한국을 떠난 이후 45년 만에 태권도의 본 고장인 한국에서 치러진 첫 합동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시범 성사를 위해 WT는 ITF의 초청 문건을 북으로 송부했고 이후 참가의사를 밝힌 ITF 시범단 및 임원 34명은 결국 방남을 이루었다(Yang, 2017.05.22). 남북한 양대 기구의 만남이 원활하게 성사되기 까지 IOC의 지원과 협력 이외에도 WT 조정원 총재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정원 총재님은 공식 초청 공문을 보내기 이전부터 2017년 5월 스위스 로잔에서 ITF 리용선 총재와 북한의 장웅 IOC위원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2014년 중국 난징에서 맺은 합의의정서의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무주대회 시범공연 방안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KKS Testimony).

WT-ITF 협력의정서를 토대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

픽대회 개막식 식전행사에서는 세 번째 남북한 합동태권도시범이 이루어졌다. 이는 2017무주대회 개막식 시범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서 양측 태권도 단체의 대표가 올림픽 무대에서 합동시범을 재현할 것을 구두로 합의한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이룬 합동시범의 추진은 결코 쉽지 않았다. 2017년 무주대도시범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을 당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앞서 2017년 9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ITF세계선수권대회에 WT 시범단을 초청하겠다고 합의한바 있으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Kim, 2018.02.15.)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대회참가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ITF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Yang, 2018.01.13).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1월 17일 열린 판문점 남북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을 평창에 파견하기로 합의했고, 확고한 이행을 위해 1월 20일 IOC 주최의 스위스 실무회의에 모인 남북대표단은 평창올림픽대회참가에 대한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Son, 2018.01.09).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2018년 2월 남북한 시범단은 전 세계인이 목도하는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태권도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은 인종과 종교, 정치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추구'라는 올림픽 정신을 지향하기 때문에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이룬 남북 합동시범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2) WT-ITF 평양합의서를 통한 남북한 합동시범

남북한은 2014년에 협약된 상호협력 의정서를 기반으로 세 번의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을 성사시켰다. 당시 합동시범 추진과정 중 점진적으로 이뤄진 태권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2018년 11월 '남북한 태권도 통합을 위한 평양 합의서'가 체결되는 결실을 가져왔다(Kwak, 2020). 이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WT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조정원 총재가 태권도의 통합 및 발전 방안을 ITF에 제안하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체결된 합의서에는 WT-ITF 공동기구의 발족,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단의 구성과 월드투어 진행, 국제대회의

공동 개최, 경기규칙과 용어 통일을 위한 남북 선수들의 합동훈련, 두 단체의 단증과 심판자격증 상호 인정, 태권도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등재 등(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9.02.14; Hong, 2020.2.19.)과 같은 진취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후 WT 조정원 총재는 2019년이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착안하여 올림픽의 성지인 스위스에서 남북 합동시범공연을 평양 합에서 이행의 첫 발걸음으로 계획하였다(Choi, 2018.11.02). 이를 위해 2018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에서 IOC위원장을 만나 두 태권도 국제기구의 공동 시범 취지를 설명하고 합동시범 행사 일정 등을 조율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WT 태권도그랜드슬램챔피언십이 열린 중국 우시에서 남북한 간의 첫 실무회담 자리를 마련하여 재차 남북합동공연을 제안했고 결국 ITF의 참여 의사를 이끌어 냈다. 양 단체의 지속적인 만남과 논의 끝에 ITF의 확고한 동의를 얻어낸 WT는 2018년 12월 15일 유럽순방 합동시범을 협의하기 위한 문건을 ITF로 발송했으며, 이듬해 1월 14일 ITF를 통해 참가합의서를 회신 받음으로써 남북 태권도 사상 최초의 유럽순방시범이 확실히 되었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9.02.14).

이로써 8박 9일 일정으로 ITF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 그리고 UN제네바 본부에서 평화의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을 펼치게 되었고, 태권도는 남북의 화합을 이루는 평화의 상징이자 도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2. 남북한 시범단의 역할과 합동시범의 의미

1) 태권도 기술 이질화의 개선

본래 남북 태권도의 근원은 하나이나 분단 이후 70여 년간 서로 상반된 길로 발전해온 결과 WT는 발기술 중심의 올림픽 무도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반면, ITF는 무도로써 태권도의 원형과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며 발전했다(Lee, 2018.11.04). 이렇게 두 단체의 태권도 기술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의 여부는 2015년 사상 첫 한 무대에서 이론 WT-ITF 합동시범을 통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태권도시범이란 태권도 소개를 목적으로 태권도의 품새/틀, 겨루기/맞서기, 격파/위력, 호신술/특기 등을 구성하여 관중들에게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단체가 추구하는 태권도의 다양한 특색이 시범프로그램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남북 태권도 교류가 단절된 채 발전해온 결과 한 무대에서 보여준 남북의 시범내용은 대단히 상이한 모습이었다. 당시 실제로 경험한 이질화된 태권도시범상황을 솔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북한과 처음 맞추는 합동시범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남북한이 추구해 온 품새의 명칭과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남한이 주로 보여줬던 시범발차기를 함께 하기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작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LYS, Testimony).”

“첫 합동 시범이다 보니 북측 시범단의 성향이 어떤지, 어느 정도 선까지 교류가 가능할지, 함께 연습할 시간이 할애 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우선 각자의 시범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작들로 짧게 구성했습니다.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범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의 다른 시범기술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IJS, Testimony).”

“태권도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듯 다른 태권도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칭도, 내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권도라는 공동의 명칭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첫 남북태권도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KAR, Testimony).”

비록 양 단체가 추구하는 태권도의 형태는 상당부분 달랐지만 남북이 단일 무대에서 태권도를 통해 하나 된 모습은 오랜 기간 상이하게 발전해온 태권도 기술의 이질감을 확인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5년 남북한 첫 합동시범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사된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무대에서는 WT-ITF 모두 발전된 시범기술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시범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WT는 제3야전군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대규모의 위력격파 시범을 선보였고, ITF는 위력격파 시 다량의 기와와 두꺼운 송판(10cm)을 다채롭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 Video Analysis, 2018.11.01).

2015년부터 이루어진 WT-ITF의 잦은 시범교류와 만남은 양 단체의 관계를 유연하게 해주었고, 그 결과 2018년 2월 WT세계본부에 방문한 ITF의 리용선 총재는 “양 단체의 기술을 통합하여 통합된 규칙으로 합동 태권도경기를

치르자.”고 제안(Han, 2018. 2. 14.)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기술통합 제안은 앞선 2014년 8월 중국에서 체결한 WT-ITF 협정의정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당시 WT의 조정원 총재는 “같은 태권도로서 상호 단체를 인정하는 의미로 기술을 교류해 WT가 주최하는 올림픽에 ITF가 출전하는 방안을 허용 하자.”라고 제안했었다(Han, 2015.02.07).

2019년 성사된 유럽순방 합동 태권도시범에서도 남북한 태권도 기술 통합이 언급되었다. 당시 UN본부 시범행사에 참석했던 WT 조정원 총재는 “지금은 WT-ITF가 각자의 경기규칙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태권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ITF 리용선 총재 또한 “남북한은 하나 된 태권도를 꿈꾸며 여러 차례 합동시범을 펼쳤다. 역사적인 합동시범 공연이 모든 태권도인들이 염원하는 하나 된 태권도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Kim, 2019.04.15).

이상과 같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WT-ITF 태권도시범 교류는 오랜 기간 분리되어 발전해 온 양대 조직의 이질화된 태권도 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점진적으로 제공해 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2) 조직간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

2014년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유스올림픽에서는 WT-ITF 단체 간의 만남이 시도되었다. 이는 지난 50여 년 동안 남과 북을 중심으로 각각 발전해온 국제 태권도 기구 간의 만남이었다. 당시 WT 조정원 총재와 WT 장웅 총재는 상호 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협력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두 조직 간의 발전적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5).

두 단체가 일궈낸 첫 상호협력의 결실은 2015러시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성사된 WT-ITF 합동 태권도시범 교류는 양 단체의 통합을 염원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양 국제기구 간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사료된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양 단체의 총재는 상이하게 발전해 온 남북 태권도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목도하며 남북태권도가 추구해야할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기준점을 논의(Kwak, 2020)하는 뜻깊은 교류를 이끌어 냈다.

이후 WT-ITF 협정의정서를 토대로 재개된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의 남북 합동시범 교류는 두 조직

의 협력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조정원 총재는 무주 합동시범의 추진에 앞서 IOC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양 조직 간의 협력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스위스 로잔에서 리용선 총재를 만나 재차 논의하였고, 마침내 ITF 본부가 1972년 한국을 떠난 이후 45년 만인 2017년 태권도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에서 남북 최초의 합동 태권도시범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Yang, 2017.06.29).

2018년 2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성사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의 WT-ITF 합동 태권도시범은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 조직의 상호협력 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스포츠축제인 올림픽 참가가 이뤄지기까지는 양국 간의 대화와 만남, 그리고 양 조직 간의 상호협력의 노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20).

2019년 유럽순방 남북한 합동 시범공연에서도 WT-ITF의 통합 의지와 협력은 굳건하게 유지되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WT 조정원 총재는 “ITF의 본산인 오스트리아 빈과 올림픽의 본산이자 WT와 관련된 스위스 로잔과 UN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시범교류 행사를 통해서 양대 기구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를 지향하며, 하나씩 이뤄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강조하였고, 리용선 총재도 “WT/ITF는 하나 된 태권도를 꿈꾸며 여러 차례 합동시범을 펼쳤다. 역사적인 합동 공연이 모든 태권도인들이 염원하는 하나 된 태권도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Jang, 2019.04.13).

이상과 같이 WT-ITF는 2014년 체결된 난징협력의정서를 토대로 상호인정과 존중을 통한 통합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며 다수의 합동 태권도시범 교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시범 교류는 분명 두 조직이 상호협력하고 보다 더 개선된 관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이 각각 주도하는 WT-ITF는 더 이상 합동 태권도시범이라는 상징성에 정체되지 않고, 진정한 남북 태권도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3) 올림픽 정신의 실현

스포츠는 세계평화와 화합을 실현하는 힘이 있다. 스포츠 교류는 모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교류는 남북의 화합과 전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의 교류, 화합과 평화’라는 용어들이 매스컴을 통해 속출하였고,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성사되었던 남북 합동시범 교류는 태권도 교류의 차원을 넘어 남북화합과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Kwak, 2020).

실제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WT-ITF 태권도 두 국제기구는 태권도시범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 구현에 앞장섰다. 2017무주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난민캠프 지원 등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WT의 역할을 높이 치하하며 “태권도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 번영에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Han, 2017.06.23.) IOC위원장도 “태권도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운동.”(Yang, 2017.07.04.)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무주대회 개최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염원했던 대로 2018년 2월 대한민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동계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 및 ITF 태권도시범단이 참여(Han, 2018.02.14.)함으로써 남북은 세계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올림픽정신 실현에 일조할 수 있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사상 처음 이루어진 남북 태권도 합동시범은 마지막 시범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현수막의 문구(하나의 세계, 하나의 태권도, One World, One Taekwondo)처럼 태권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의 가치를 구현했다고 사료된다.

이후 이루어진 2019 유럽순방 WT-ITF 합동시범 행사에서도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는 무도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대외로 알리고 전 세계에 하나 된 태권도 평화정신을 더욱 각인시킬 수 있었다. 당시 시범행사에 참석한 UN국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오늘 공연은 평화와 화해, 우정과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스포츠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태권도는 예의, 진실성, 인내, 불굴의 의지를 표방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UN현장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시범행사에 참석한 IOC위원장도 “태권도가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스포츠가 평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WT 조정원 총재도 “평화증진과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스포츠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태권도가 어떻게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왔는지 지켜봐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루어진 남북 합동시범의 가치를 강조했다(Lee, 2019.04.11).

유럽순방시범에 참여했던 IJS 면담자도 태권도교류를 통한 평화구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어느 나라에서든 평화와 화합은 값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평화와 화합이라는 것을 두 시범단의 합동공연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비단 분단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IJS, Testimony).”

이처럼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성사된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은 종교와 정치, 이념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추구’라는 올림픽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의 올림픽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남북 합동시범은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3.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의 발전방안

1) 정기적 교류관계의 구축

남북의 교류협력은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의 특별 관심분야에서 출발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 북한 태권도가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 종목으로 각광받고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 수련을 활성화시킨 점은 남북 태권도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권도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남북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요소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남북의 태권도 교류관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ITF 태권도시범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드투어시범의 공동사업 추진 ‘남북 통합시범단’을 결성해야 한다. WT 조정원 총재는 정기적인 태권도 교류를 위한 일환으로 남북의 장점만을 융합한 태권도시범단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시범공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북측 시범단의 공연이 음악 없이 태권도의 강렬함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남측 시범단은 음악을 가미하여 태권도의 문화적, 예술적 측면도 보여주려는 특징이 있다. 북측의 강렬함과 남측의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동한다면 전 세계인들에게 케이팝(K-pop) 공연 못지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Sim 2018.11.18).

이러한 남북 합동시범단의 결성은 2018년 체결된 WT-ITF 평양합의서의 “남북 합동 태권도시범단을 구성하여 월드 시범투어를 진행한다(Sim, 2018.11.18).” 라는 내용에 따라 2019년 4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25주년을 기념한 유럽순방 합동시범공연에서 시도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공연단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향후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펼치는 합동시범공연단이 정식으로 출범되어 활동을 이룬다면 남북의 태권도가 하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정기적 태권도시범 교류를 위해 남북 합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두 기구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태권도시범 교류가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실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진정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WT-ITF 교류협력 위원회를 결성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례화 된 만남을 일궈냄으로써 남북한 통합 시범단의 단·장기적인 운영계획 외에도 태권도 기술의 교류, 남북 시범경연대회의 개최 등의 다차원적인 남북 태권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체계적 합동시범 운영방안 구축

앞서 제시한 다차원적인 시범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 운영방안 구축을 제안한다.

첫째, 정기적인 합동 태권도시범을 위한 공동 훈련장이 건립, 지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룬 남북한 합동시범은 국제적인 행사 일정 및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 급속도로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의 합동시범 교류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행보였으나, 매 시범마다 각자의 주어진 일정에 따라

합동시범 장소에서 극적으로 만나 각 단체 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훈련하고, 일정상 짧은 시간에 협의된 합동시범 무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녔다(SMS, Testimony).

2018년 11월 평양에서 협약된 WT-ITF 태권도 통합 및 발전을 위한 평양 합의서에서 “서로 다른 규칙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남북의 합동훈련을 진행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Sim, 2018.11.18.) 있었던 것처럼 향후 양국이 일원화된 행정계획과 지원 하에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동 훈련장이 지정·건립된다면 남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국제행사와 해외투어의 준비과정부터 남북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합동시범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동시범의 의미에 맞는 단일화된 시범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양 단체 간의 시범기술을 공유·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제도화된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태권도의 교류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온 결과 WT는 화려한 발기술을 앞세운 공연예술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하며 발전해온 반면 ITF는 강인하고 실전적인 무도성을 강조한 정통 태권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S, Testimony). 이러한 이유로 양 단체는 합동시범 시 진정으로 하나 된 태권도를 시연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녔다.

따라서 진정한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단체가 단일화된 시범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도적 지원 하에 남북한 합동시범 훈련이 정기적으로 성사된다면 남북한이 각각 추구하는 기본 요소인 품새/틀, 격파/특기기술, 호신술/맞서기 등의 기술통합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국제대회 및 올림픽의 경기규칙에 따른 태권도기술의 통합까지도 이루어 두 기구가 주최하는 세계대회와 올림픽에서도 단일 팀으로 공동 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3) 남북한 관계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대립 관계 탈피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 미·중의 핑퐁 외교, 미국과 쿠바의 야구 외교, 남아공의 럭비월드컵을 통한 흑백화합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이끈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다. 스포츠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정치, 외교,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Choi, 2021). 우리나라 역시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신금단 선수의 부녀

상봉을 통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남북 간 화해의 계기가 되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은 화해를 넘어 남북의 평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간 경색되었던 정세 속에서도 2000년 이후 남북 태권도시범 교류가 성사되기까지 이루어진 양 국가 및 단체의 성사 의지와 시도, 지속적인 만남은 분명 남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평화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행사에서 남북한 합동시범 교류가 이루어질 당시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 사드 배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대단히 정체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북한의 대회 참석과 개막식 식전행사에서의 남북 합동시범은 양 단체 간의 교류와 화합이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의 물꼬를 트는 건설적인 만남이 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남북한 합동 태권도시범의 추진배경과 결실에 나타난 의미를 규명하여 향후 남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추구해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중재로 2014년 체결된 WT-ITF 교류협력의정서는 남북 합동태권도 시범공연이라는 진취적이고 역사적인 현장 구현을 가능케 했으며, 이후 남북의 본격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2018년 체결된 평양합의서는 올림픽의 정신이 깃든 스위스 로잔과 제네바 UN본부에서 사상 첫 남북 합동태권도시범을 성사시킴으로써 무도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대외로 알리고 하나 된 올림픽 평화정신을 각인시키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둘째, WT-ITF 합동시범 교류는 두 조직의 이질화된 태권도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두 조직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구축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합과 올림픽 정신인 전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WT-ITF 합동 태권도시범 교류가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월드투어시범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합동 추진위원회 및 태권도시범단을 결성하고, 합동시범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훈련장을 지정, 건립하여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행정적 지원체계가 정부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남북한 시범의 용어와 맞서기/호신술/품새/틀 등과 같은 태권도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분석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국기원 연구소와 조선태권도위원회연구소 등의 상호 연구원 파견 교류 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2015 *Video Analysis of the Russia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2018, November, 1).
- Choi, D. S. (2020). *An Exploration of Developmental Plans for Taekwondo Demonstration Teams through Joint Demonstr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Taekwondo*. Kyung-hee University Doctors Dissertation.
- Choi, T. Y. (2018, November, 02). *Proposed inter-Korean Performance to Celebrate the 25th anniversary of Olympic Taekwondo*.
- Han, H. J. (2015, February, 17). *WTF-ITF Create Harmony Mode*.
- Han, H. J. (2017, June, 23). *North Korea's Demonstration Team Arrives on the 23*.
- Han, H. J. (2018, February, 14). *The Power of Taekwondo, Contributing to the Peace Olympic*.
- Hong, S. B. (2017). *A Study on Exchange and Blend of Taekwondo in North and South Korea*,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 Journal*, 11(2), 83-115.
- Hong, S. B. (2020, February, 19). *Inter-Korean Taekwondo Cooperation for Joint Olympics in 2032*.
- Jang, K. (2003). *Comparison and Analysis of Taekwondo demonstration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2(4), 45-57.
- Jang, M. H. (2018, September, 19). *World Taekwondo, Go to Pyongyang inviting of ITF*.
- Jang, M. M. (2019, April, 13). *South-North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Successfully held a joint demonstration in Europe*.
- Jang, W. S.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Taekwondo joint pilot demonstration program in South & North Korea (WTF · ITF)*, Han-yang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Jung, H. D, Park, D. S. (2008). *Comparative Analysis of*

- Taekwondo Demonstration Contents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3(1), 147-156.
- KAR Testimony (2020, January, 23). WT Demonstration Team Member.
- Kim, I. C. (2018, February, 15). *(Olympic) South and North Taekwondo, holding hands in Pyeongchang*.
- Kim, K. M. (2017, June 25). *North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28, Come to Seohae Overland on 7*.
- Kim, S. J. (2019, April, 15). *Dreaming of becoming one, Taekwondo*.
- Kim, W. (2001). *The Establishment of Taekwondo and Prospect of Inter-Korean Exchange,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10, 62-79.
- Kim, Y. (2018). *Discussion on Ways to Promote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14-48.
- KKS Testimony (2020, February, 18). WT Chief of the Sports Department.
- Korea Sports & Olympic Committee(2018). *Sports 1*(13).
- Kwak, A. Y. (2020). *A Study on the Meaning of Joint Demonstration and Achieving Process of Taekwondo Demonst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0, 9-21.
- Lee, B. (2003).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in the Exchange of Taekwondo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Case Study from the 2002 Exchange of Demonstration Teams,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8(1), 17-29.
- Lee, B. (2015). *A study on the Inter-Korean Taekwondo Exchanges, Korea Institute of Sports Science*, 69-138.
- Lee, J. K. (2018, 11, 04). *Inter Korea Taekwondo integration*.
- Lee, K. C. (2019, April, 11). *North and South Taekwondo performance in Lausanne Switzerland*.
- LJS Testimony (2020, January, 23). WT Demonstration Team Head Coach.
- LYS Testimony (2020, January, 23). WT Demonstration Team Head Coach.
- Meong, C. S. (2001).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Park, W. K. (2002). *Research about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aekwondo demonstration programs*, Yong-in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Sim, H. H. (2018, September, 18). *North and South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romoting a World Tour K-Pop*.
- SMS Testimony (2020, February, 3). WT Demonstration Team Direct Supervisor.
- Son, B. S. (2018, January, 9). *North, Participating in the Pyeongchang Olympics*.
- World Taekwondo Federation (2015). *To the Olympics & Beyond: 40 Year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orld Taekwondo Federation.
- World Taekwondo Federation Collection Materials. (2019, February, 14).
- Yang, T. J. (2015, February, 18). *WTF-ITF demonstration team are on the same stage*.
- Yang, T. J. (2017, July, 4). *From the president to the ITF visit*.
- Yang, T. J. (2017, June, 29). *IT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Visit Kukkiwon*.
- Yang, T. J. (2017, May, 22). *ITF Demonstration, Perform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Muju World Championship*.
- Yang, T. J. (2018, January, 13). *North Korea(ITF) Demonstration Team, Come to Pyeonghang in eight Months*.

An Exploration of Developmental Plans of the Joint Demonstr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Taekwondo

Choi, Dong-Sung^{1*} · Jeon, Jung-Woo² · Kwak, Ae-Young³

1. Kyunghee University, Doctor 2.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3.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o analyze the promotional backgrounds and result of WT-ITF that were promoted from national dimensions, thoroughly establish the meaning of Taekwondo joint demonstrations deduced through this, and development planes for future WT-ITF demonstration teams.

Method Research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ho participated in the joint demonstration.

Results First, The WT-ITF cooperation agreement(2014) and Pyongyang agreement(2018) signed for full-fledged mutual coopera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value of martial arts Taekwondo to the world and to imprint the spirit of peace in the Olympics by achieving joint Taekwondo demonstrations in Europe. Second, WT-ITF Taekwondo exchange strengthened integrability of Taekwondo skills and peace around the worl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promotion committee and a demonstration team to promote the world special project and provid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training center.

Conclusion Two Koreas should break away from ideological relations based on principle, practicality and maintain a smooth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establishing themselves as sports events that truly unite and contribute the world peace.

Keywords WT-ITF joint demonstration,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nter-Korean Taekwondo Exchange, Development of joint Taekwondo demonstration.

논문투고일: 2021.11.08.

논문심사일: 2021.11.24.

심사완료일: 2021.12.17.

논문발간일: 2021.12.30.